

01 교회소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경공부 교재 『감추었던 만나 1』 발간, 일본 3개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 등 국내외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 그리고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오직 한 분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다.

03 신앙상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양심심판을 통해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길도 마련해 두셨다.

04 간증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추돌사고에서 보호받은 박성화 집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환 자기도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은 태국 수니사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29호 2016년 3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세계 최초 찬양전문 닛시오케스트라 창단 24주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닛시오케스트라가 창단 24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8일 주일 저녁예배 시 만민찬양 '하늘 영광'과 '우리의 찬양' 등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92년 3월 1일 창단되어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① 등 각종 교계 연합행사, 국가연례조찬기도회와 한-러 친선 음악회② 등 국가 차원의 연주 및 해외 연합대성회③, 교회 각종 행사④~⑦ 등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성경공부 교재 『감추었던 만나 1』 발간

『옛새 동안의 만나』에 이은 매주 성경공부 교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감추었던 만나 1』이 오는 3월 20일에 발간된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선에서는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막달라 마리아 등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신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선(善)과 사랑을 배우며 응답과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해 준다.

파트 2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 즉 온 영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믿음 성장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며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단계인 온 영, 더 나아가 온 영에서도 더 깊은 차원을 사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발간되는 『감추었던 만나 1』 책자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장 영화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

### 일본 3개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사진)를 감사로 일본의 이다, 동경, 동경타바타 3개 지교회에서 창립 기념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다.

감사 이희선 목사는 '믿음', '참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등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신뢰와 순종으로 나올 것과 이를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 함을 전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희선 목사가 기도해 주자 자폐증, 중이염, 피부 습진, 비염 등이 치료되고 각종 통증이 사라지며 시력이 회복되는 등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일꾼 만남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행함으로 온 영의 흐름을 더욱더 힘차게 타고 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희선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인류의 조상인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듣거나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나마 신을 인정하고 찾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한다 해도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창조주가 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

먼저, 세상에 있는 많은 인종과 민족이 각각의 생김새는 물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눈 두 개, 귀 두 개, 코와 입은 하나이며 그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이나 새와 곤충, 물고기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는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여럿이었다면 각자 원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창조할 것이기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질 수 없겠지요. 반면 진화론자들은 하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되어 마침내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진화하여 육지 동물이 되고 육지 동물이 진화하여 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지음 받았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이지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 해도 원숭이가 영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현상들을 보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는 여러 규칙적인 현상들과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과 밀물과 썰물이 생기며 대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달의 거리도 가장 적당하지요. 더 멀거나 더 가까워도 안 되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 온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 시계만 보더라도 많은 부속품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시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부속품들이 저절로 조립되어서 규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다면 과연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며 정확한 질서 가운데 스스로 운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고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마지막 심판 날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3.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창조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등 사람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분명한 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사람의 생각과 틀이 깨어집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 자신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모세는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지요.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 권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들이 무수히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은 천지만물과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 속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으며,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에 관한 해답을 밝히 제시하며 만세 전에 감추어진 깊고 비밀한 내용을 다루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분명히 알려 주어야 성도들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밝히 알아야 합니다.

## 1.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상상 속에 지어낸 신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참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든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초월한 신이시며 무한하신 분이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정된 식견으로는 아무리 궁구해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Q.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 ●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 행위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양심심판

로마서 2장 14-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셨지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

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마음에 심겨진 의의 도, 곧 양심을 좇아 살았습니다. 즉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반면, 양심에서 악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심판입니다.

### ● 마음이 선하여 양심심판을 통해 윗음부에 거하게 되는 영혼들

양심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대기 장소인 윗음부로 갑니다. 반대로 지옥의 대기 장소로는 아랫음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던 윗음부와 아랫음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연

락하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선한 양심을 지닌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윗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렇지 못한 부자는 아랫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을 보면 악인들이 그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곳인 아랫음부가 나옵니다. 아랫음부가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곳인 반면, 거지 나사로가 의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윗음부는 마음이 선하여 양심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편안하게 있는 곳입니다.

### ● 윗음부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사랑의 섭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가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으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그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윗음부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영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곧 윗음부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므로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했고, 에베소서 4장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윗음부를 옥이라 표현한 것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과 비교할 때 약간의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곳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양심심판에 의해 윗음부로 가는 영혼들은 아브라함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눅 16:22-31). 구원받은 양심을 가진 영혼들은 윗음부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양심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양심의 선한 정도와 의로운 정도에 따라 천국의 영광도 구분해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치 않도록 역사하십시오.

## A.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양심심판입니다.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li> <li>십계명 8-10</li> <li>전도 1-2</li> <li>천국 36-40</li> <li>지옥 7-11</li> <li>일곱교회 20-24</li> <li>요한일서 강해 1-6</li> <li>요한계시록 강해 49-56</li> <li>죽은 자를 위한 세례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 앞에 꿈을 심자 (이수진 목사)</li> <li>지혜 1 (이미영 목사)</li> <li>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희선 목사)</li> <li>옴기 강해 18 (신동초 목사)</li> <li>열재앙 2 (정구영 목사)</li> <li>위로부터 난 지혜 4 (김수정 목사)</li> <li>준비된 그릇 (임환택 전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1</li>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3</li> <li>내 마음의 찬양 21</li> <li>창조와 과학 23</li> <li>English 11</li> <li>모두 드려요 39</li> <li>부티풀 라이프 10</li> <li>즐거운 요리 23</li> <li>흥겨운 소리 8</li> <li>옛날 옛적에 3</li> <li>플로리스트 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연합대성회 4</li> <li>믿음으로 걸어온 길 33</li> <li>회상 [시즌2] 6</li> </ul>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3.13~3.19  
**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

# “추돌사고에서도 제 몸은 상하지 않게 주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박상화 집사 (54세, 1대대 1교구)

2016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1톤 트럭을 운전하며 시속 100km 정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가던 대형화물트럭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임을 직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겨를도 없이 “꽁!” 하며 추돌사고가 났고, 눈을 떠보니 유리창이 깨진 채로 차체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자 이내 통증이 사라졌지요.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20여 분간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확신하니 평안하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해 저를 꺼내주시면서 “아니, 이런 사고에 괜찮으세요?” 하며 멀쩡한 제 모습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앞에 가던 대형화물트럭 앞에서 승용차들끼리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대형화물트럭도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제 차까지 추돌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지요.



그날은 금요일예배가 있어서 만민봉사대 총대장인 저는 평소처럼 예배 전후에 교통 봉사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지요. 사고 당시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 제 차가 1cm만 더 찌그러졌더라도 제 무릎과 복부가 차체에 찢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1cm를 지켜주심으로 어떠한 부상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더욱이 유리파편에 얼굴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또한 보험처리가 되어 물질적으로도 손해 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사고 후 두 달가량 지났는데도 저는 아픈 곳이 전혀 없이 건강하며,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고자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31년 된 고혈압이 치료되고 남편의 청력도 회복되었어요”

수니사 쟁짜런 성도 (62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일할 때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호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당시에는 수입이 매우 좋았지만, 2014년 치앙라이로 이사는 뒤 제과점, 커피숍, 옷가게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이러한 저희 부부에게 이웃과 친척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었기에 더욱 그리웠지요. 그러던 중 이웃에 살던 티따간 집사의 전도로 2015년 11월 29일, 치앙라이만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한국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을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드리는데, 화상으로 본 성전과 성도들의 모습, 성가대의 찬양과 넋시오케스트라의 연주,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지요.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귀에 쫄쫄 들어왔고, 그 내용에서 진실함이 느껴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후 각종 예배는 물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등 책자를 읽고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갔지요.

교회에 등록한 지 두 주가 된 12월 13일 주일, 그날도

화상을 통해 설교 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게도 중이염으로 앓았던 남편의 왼쪽 귀 청력이 회복되어 소리가 정확하게 들릴 뿐 아니라 염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 또한 31년 된 고혈압과 방광염을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사실 제 남편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니 그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남들과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당회장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다 아시듯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날 설교를 통해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제단을 만나 저희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니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지요.

저희 부부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참 행복과 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li> <li>●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li> <li>●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li> <li>●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li> <li>●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li> <li>●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63)468-7027, 010-7777-7027</li> <li>●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li> <li>●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li> <li>●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li> <li>●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li> <li>●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li> <li>●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li> <li>●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li> <li>●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li> <li>●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li> <li>●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li> <li>●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li> <li>●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li> <li>●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li> <li>●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li> <li>●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li> <li>●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li> <li>●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li> <li>●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li> <li>●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li> <li>●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li> <li>●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li> <li>●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li> <li>●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li> <li>●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li> <li>●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li> <li>●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li> <li>●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li> <li>●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li> <li>●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li> <li>●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li> <li>●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li> <li>●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li> <li>●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li> <li>●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li> <li>●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li> <li>●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li> <li>●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li>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li> <li>●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li> </ul> |
|---------------------------------------------------------------------------------------------------------------------------------------------------------------------------------------------------------------------------------------------------------------------------------------------------------------------------------------------------------------------------------------------------------------------------------------------------------------------------------------------------------------------------------------------------------------------------------------------------------------------------------------------------------------------|-----------------------------------------------------------------------------------------------------------------------------------------------------------------------------------------------------------------------------------------------------------------------------------------------------------------------------------------------------------------------------------------------------------------------------------------------------------------------------------------------------------------------------------------------------------------------------------------------------------------------------------------------------------------------------------------------------------------------------------------------------------------------------------------------------------------------------------------------------------------------------------------------------|--------------------------------------------------------------------------------------------------------------------------------------------------------------------------------------------------------------------------------------------------------------------------------------------------------------------------------------------------------------------------------------------------------------------------------------------------------------------------------------------------------------------------------------------------------------------------------------------------------------------------------------------------------------------------------------------------------------------------------------------------------------------------------------------------------------------------------------------------------------------------------------------------|------------------------------------------------------------------------------------------------------------------------------------------------------------------------------------------------------------------------------------------------------------------------------------------------------------------------------------------------------------------------------------------------------------------------------------------------------------------------------------------------------------------------------------------------------------------------------------------------------------------------------------------------------------------------------------------------------------------------------------------------------|------------------------------------------------------------------------------------------------------------------------------------------------------------------------------------------------------------------------------------------------------------------------------------------------------------------------------------------------------------------------------------------------------------------------------------------------------------------------------------------------------------------------------------------------------------------------------------------------------------------------------------------------------------------------------------------------------------------------------------------------------------------------------------------------------------------------------------------------|